

## 수소 충전소 50곳 확대, 실증센터 설립

# 광주시, 수소車 인프라 구축 속도

국내 첫 실증센터 기술개발 주도  
하반기엔 충전프로토콜 등 개발  
2030년까지 충전소 50곳 설치

친환경차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흐름에 맞춰 광주시가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기술 고도화에 나서는 동시에 2030년까지 충전소 50곳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수소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기 전에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진단 안에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신기술 개발과 충전소 고장 예측, 충전대기 시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달부터는 국내 개발품인 수소 추출기와 수전해기, 차량충전, 분산발전 설비가 설치돼 시운전을 시작으로 수소충전소 전주기 제품 필드환경 실험에 착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차량 안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충전프로토콜 등 차량 안전기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해 수소충전소 고장예지(예측) 및 안전관리 상용화 기술개발



지난해 12월 열린 광주 수소 저상버스 시승식.

/뉴스스

과 수소전기차 다차종 동시 충전을 위한 광역수소충전소 핵심기술 개발 공모에 선정돼 수소충전 기술 고도화와 효율화, 부품 국산화 등 미래 신산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첨단3지구에 구축 예정인 수소 전기차 다차종 동시충전을 위한 광역 수소충전소에 적용되는 고속충전시스템은 세계 최초 개발 품목으로 수소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진곡, 동곡, 임암, 벽진 등 4곳에 이어 올해 북구 월출, 장등동에 수소충전소 2기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수소전기차는 승용차 802

대, 버스 6대가 보급운행 중이다. 앞으로 매년 수소충전소 3~4곳을 추가 설치해 2030년까지 주요 지역에 총 50곳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시는 국내 최초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와 안전관리 기술개발, 광역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미래 차 중심으로 수소 관련 지역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 선점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농어촌 빙집, 마을 쉼터로 탈바꿈 한다

전남, 빙집 활용 공동시설 사업 추진  
마을 특성 살려 정비… 새움결 기대

전남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늘고 있는 빙집을 정비하고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빙집은 매년 예산 형편에 따라 철거 위주로 추진했다. 지난해 20억 원을 들여 1400여 동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245억원을 투입해 3만8000여 동을 정비했다. 올해는 1500여 동을 정비하는 계획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빙집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시 단위의 동 지역

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 빙집은 5만6000여 동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 중 전남에 1만4000여 동이 있다. 매년 2000여 동씩 늘어나, 모두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통계청 자료는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집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151만 7815동이 있고, 전남에는 12만1767동이 있다.

빙집 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불가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남도는 가급적 마을 특성을 살리고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철거 부지에는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나무 등을 심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을별 실태 조사를 통해 활용 대안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한다.

또 도시재생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빙집의 정보를 귀향, 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에게 제공한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건축, 토지관리, 도시개발 등으로 분산된 업무 간 협업을 통해 빙집이 홍물이 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마을을 살리는 지원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 광주 북구, 주거 취약계층 찾아 개·보수

‘행복동지 사랑의 집수리’ 추진

광주광역시 북구는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행복동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북구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처음 시작됐다.

이후 북구는 매년 1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도배·장판 교체, 창호·욕

실개량 등 집수리와 이불·생필품과 같은 후원물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주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주거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7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29일 중흥2동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을 비롯해 사회공헌에 참여하고자 하는 율곡·우산센이나란히·아이미소·꼬마성·안데르센어린이집 관계자와 함께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문인 북구청장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이웃이 이웃을 돋는 복지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광주=강성대 기자

## 영양군,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 3주 연장

오늘부터 23일까지 적용

영양군은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 시범적용을 3주간 연장 실시한다.

영양군은 4월 26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 기간 동안 영양군에서는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을 3주간 연장하게 됐다.

4월 26일 시작된 후 영양군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운동영양군협의회 코로나19 퇴치 캠페인, 특별방역점검기간 시행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 고위험시설의 자발적인 점검 및 소독, 영양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 기간 동안 영양군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으로 식당의 손님이 늘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어 다행이며, 영양군민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이 문제없이 진행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부산시 “어르신 맞춤형 상담 해드립니다”

### ‘경로효친 상담센터’ 개소

부산시는 경로효친 상담센터가 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를 상담할 창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복지시설 등 분야별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로당, 노인시설 등이 휴관하면서 우울증이나 정서적·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상담하고 해

결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와 부산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산노인회관 4층에 노인종합상담창구인 경로효친 상담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센터에는 베이비부머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로 선발된 전문 상담사가 근무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상담으로 이뤄진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 이상익 함평군수, 코로나19 AZ백신 접종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지난달 30일 함평군보건소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예방 백신을 접종했다고 2일 밝혔다. 군 재난대책본부 관련 직원 24명도 이날 함께 접종을 마쳤다.

이날 오후 접종 절차에 따라 1차 접종을 마친 이 군수는 이후 이상 반응 확인 차 일정 시간을 보건소에서 머문 뒤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함평군은 지난달 29일 기준 65세 미만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 고위험의료기관, 1차 대응요원, 75세 이상 어르신, 돌봄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등 조기접종 대상자를 포함해 5988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지역택시를 활용한 75세 이상



이상익 함평군수가 함평군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사를 맞고 있다.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제공 등 안전하고 체계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강성대 기자

## 화순군 도시재생대학2기 등 수강생 모집

화순군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생생아카데미’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2기’와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재생대학 2기는 주민 역량을 키우는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과정이다. 오는 4일까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 2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화순군 마을공동체혁신센터에서 5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열린다.

/전남=강성대 기자